

“군민이 주인공”...소멸위기 속 새 지방자치 모델 ‘보성600’

주민 참여 지역 문제 제시·해법 모색...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목표 공터에 소득작물 재배 등 마을공동체 부활...문화·복지 전 분야 확대

‘소통600·문화600·복지600·클린600·안심600·산림600’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사업인 ‘보성600’으로 큰 성과를 거둔 보성군이 ‘600’ 시리즈의 후속 사업을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보성600’은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꾼다’라는 슬로건으로 군내 600개의 자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오랜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를 깨끗하게 바꾸고, 비행·범죄 우려 지역에 벽화를 그리고, 공터에 소득작물을 심는 등 마을공동체를 부활시키며 주민자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특히 문화·관광·경제 분야에서 유·무형의 가치를 재창출시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했다.
이로 인해 ‘보성600’은 전라남도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돼 22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는 쾌거도 이뤘다. 이 사업은 올해에만도 내 3000여개 마을을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8000여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소통·문화·복지·클린·안

심·산림 등 행정 전 분야에도 ‘보성600’ 시리즈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도내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후속사업 중 ‘소통600·문화600·복지600’ 3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 민원에 귀 기울이는 ‘소통600’=군수 직통 번호(010-5438-0600)를 소통 창구로 하는 사업이다. 생활 민원이나 정책 제안, 불편 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군수가 직접 확인하고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48시간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 7월22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80일 동안 총 250건의 문자가 접수됐다. 그 중 생활민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및 복지 관련이 뒤를 이었다.
현장 조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해결 방안을 찾았으며,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소통600’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성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예향의 삶’ 살찌우는 ‘문화600’=문화 혜택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자체 문화사업이다.
특히 ‘문화 600’ 사업의 하나인 ‘인생 한 컷’은 군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사진과 글을 전시해 보성군의 인적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생 한 컷’ 전시회는 ‘세월을 담다, 보성을 담다’라는 주제로 11월14일부터 6일간 보성군 북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섬소리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군에서 가장 큰 유인도인 장도를 찾아가 전통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서면제의 분향담계 주민들에게 전통 소리와 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루 실질적 혜택받는 ‘복지600’=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복지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실행하는 주민 주도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행복해! 보성 가족봉사단 서비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건강복지 현장 사랑방’,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 ‘사랑의 밑반찬 나눔’ 등이다.
이중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이다.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신규사업으로 보성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수행하고



보성군의 명품사업인 ‘보성600’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동운촌 생태하천길에 탄소흡수원 꽃창포를 식재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있다. 대상자들의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건조 후 다시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600 사업은 군민에 의해,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군 발전의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성 살기 참 좋겠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보성군 회천면 일대에서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올해 보성쪽파 예상 생산량은 약 1만6000t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군 제공>

알싸한 맛 영양 가득 ‘보성쪽파’ 수확 한창

회천·득량면 일대 860ha서 재배...전국적 인기

보성군의 ‘영양 만점’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국내 대표적 쪽파 생산지인 보성군이 이달부터 노지 쪽파를 본격 수확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군의 쪽파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1만6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 쪽파는 전남 최대 생산지인 회천면과 득량면 일대 860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진하고 맛이 좋아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인 ‘보성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쪽파를 공급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한 몫하고 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쪽파는 여느 해보다 향이 진하고 알싸한 맛이 뛰어나, 좋은 품질의 쪽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지리산 둘레길 걸으며 구례 가을 ‘만끽’

25~27일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둘레길 걷기 축제

‘숲길 걸으며 구례의 가을 만끽하세요’
구례군이 오는 25일부터 3일간 구례군 지리산 둘레길 일원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와 2024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지리산권역 6개 시·군(구례·남원·하동·산청·함양·장수) 주축로 아시아지역 트레일 단체들의 교류 확대와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리산의 명품 숲길과 구례의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25일,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가 더케이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열린다. 실상사 도법스님의 기도연설을 시작으로 국가 숲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정책, 다양한 숲길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대만 등의 숲길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김순호 구례군수 등 지리산권 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함께 지리산권 숲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26일에는 (사)숲길·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ATN) 주관으로 트레일 애호가들과 지리산권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가 열린다. 걷기 축제는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출발해 구례를 서시천체육공원에 도착하는 것으로,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된다.
1코스는 구례 매천사를 거쳐 천개의 향나무 숲(민간정원)을 경유하는 12.4km 구간, 2코스는 구례 온조루와 용호정을 경유하는 14km 구간, 3코스는 화엄사와 연기암을 경유하는 10.6km 구간으로 지리산 둘레길의 제18구간에 해당한다.
코스마다 참가자를 위한 간식거리와 이벤트·버스킹 등이 마련됐고, 도착지에서는 로컬 페스타와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27일에는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주민이 직접 발굴한 코스인 천은사 상생의 길을 함께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지리산 숲길 탐험대가 운영된다.
구례군은 이번 행사에 국내외 트레일단체 회원·도보여행 동호인·지리산권 지역민 등 2천여 명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4일 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참가자들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atcjirisan.com)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청 산림과(061-780-2752)에 문의하면 된다.
행사 참가 신청은 22일까지 온오피믹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걷기 축제는 https://adsl.link/walk, 지리산 숲길 탐험대는 https://adsl.link/search에서 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저소득 중증 신장장애인 560명 의료비 지원

혈액·복막 투석비 등 4년간 6억5000만원...매년 대상 확대

여수시가 지난 4년간 저소득 중증 신장장애인 560여명에 총 6억50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집계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4명에 1억507만원, 2022년 106명에 1억5116만원, 2023년 166명에 1억9960만원, 2024년 188명 1억9528만원으로 총 566명을 대상으로 6억5111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 의료비 지원은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저소득 중증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매년 지원 대상이 늘고 있어 의료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장장애인이란 만성신부전 환자로 식사 또는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 투석하거나, 콩팥을 이식한 환자를 말한다.

여수시의 의료비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신장장애인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혈액·복막 투석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식검사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100만원 ▲혈관 수술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진료받은 다음 달까지 의료비 지출서류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올 공공비축미 720t 매입

지난해 보다 41t 감소...품종 ‘새청무’ 타 품종 20% 섞이면 제외

광양시가 올해 공공비축미를 본격 매입하고 있다.
공공비축미이관 미국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국을 말한다.
올해 광양시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지난

해 보다 41t이 감소한 720t이다. 이중 논에서 수확한 벼를 건조하지 않고 바로 수매장으로 가져온 산물벼의 매입 배정량은 373t으로, 지난해에 비해 8% 감소했다. 정부는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벼 건조 및 운반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산물벼를 매입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매입 품종은 ‘새청무’로 단일 품종이다. 만약 농가에서 출하한 매입 물량이 다른 품종과 20% 이상 섞여 있으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구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물벼는 10월 말일까지 광양농협 RPC(미국 종합처리장)에서, 건조벼는 11월 초부터 읍면동 별로 지정된 일차와 장소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금은 중간 정산금으로 수매 직후 40kg 당 3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최종 정산금은 연말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가속

중앙투자심사 통과...웹툰 등 35개 기업 이전도 속도

순천시가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생태도시, 정원도시에 이어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채우는 전략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앞서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애니메이션, 웹툰 등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35개 기업의 이전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우선 순천시는 순천민국가정원 내 습지센터를 미국 픽사 스튜디오와 같은 창조적인 작업 환경을

갖춘 스튜디오로 리뉴얼해 관련 엔터테인먼트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 육천, 남문터광장, 글로벌웹툰센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겸비한 원도심 일원을 각종 전시체험 시설과 애니·웹툰 캠퍼스, 중소 제작사를 위한 입주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원도심까지 순천 전역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순천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참깨·은어 거리 ‘손님맞이 준비 끝’

24일부터 ‘심청어린시대축제’

곡성군 곡면의 ‘압록 참깨·은어 거리’가 가을 축제의 계절을 맞아 깨끗한 거리로 새단장하고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압록 참깨·은어 거리’ 상인회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곡성심청어린시대축제’를 앞두고 곡성의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근 압록유원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곡성군은 참깨와 은어에 담긴 이야기를 비롯해 축제 내용 등을 SNS를 통해 적극 알리고,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친절한 고객 응대 등 축제기간 깨끗한 군의 이미지 유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압록 참깨·은어 거리’는 섬진강 1.6Km에 걸쳐 13개의 음식점이 있는 거리이며, 지난 2016년 전라남도의 ‘남도음식거리’로 선정돼 곡성의 대표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다. /곡성=김대수 기자 bigkim2@kwangju.co.kr